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틀리거나 어색한 말, 표현의 문제—

許 椿*

차 례

I. 序論

II. 本論

III. 結論

I. 序論

언론 매체의 우리말글은 言衆의 언어 생활을 좌우한다. 강단이나 서책을 통해 백번 외쳐도 언론에서 쓰면 그것으로 고정된다. 사람들은 대체로 신문의 표기나 표현, TV의 자막 등을 의심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언론이 우리말을 가르치고 다듬는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언론 매체는 용어, 발음, 표기법, 외래어, 문장 부호, 문장 등 여러 면에서 우리말글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할 만한 지경이다. 단순한 오·탈자나 문법적 오류도 그 기사의 신뢰도를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떨어뜨리지만, 그릇된 표현은 우리말을 파괴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교열부가 축소 또는 폐지된 데다 마감 시간에 쫓기며 기사를 써야 하고 지면 편집에서 字數와 여백까지 고려해야 하고 讀易性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애로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말의 체계가 어렵다고 해서 허물을 덮을 수는 없다.

언론 본래의 사명이 정확한 정보 전달과 논평(해설)을 통한 여론의 반영과 유도에 있다고 보면 글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글이 의사 소통만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다. 방송에 비해 갈수록 신뢰성이 많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신문은, 적어도 우리말글에서는, 국민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이니 책임이 더 무겁다. 신문을 교재로 교육을 하는 이른바 'NIE'가 널리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부분의 신문사가 자체의 '교열 지침'을 만들어 주지하고 있을 텐데도 그릇된 말이 자주 보인다. 맞춤법에 맞지 않는 말은 물론이거니와 군더더기 말, 부당하게 생략하는 뒷말, 조사의 오용을 포함하여 틀리거나 어색한 단어, 생각 없이 쓰는 일(영)어식 단어와 관용구, 오·남용하는 외(국)래어, 번역체 문장, 非文과 惡文, 작성 기자만 아는 문장(문단), 생략된 문장 부호, 기준 없이 하는 띄어쓰기, 남용되는 한자어와 위축되는 고유어, 로마자·아라비아 숫자·약자·속어 남용 등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글말은 입말을 거쳐서 뒤에 나온 것이지만 지금은 글말을 바탕으로 입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인데, 자의는 아니지만 신문이 이를 거들고 있는 점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언론 매체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만, 이를 지적하고 같이 검토하는 일은 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방송에서 범하는 발음의 오류, 사전마다 제각각인 발음 표기 문제, '표준 발음법'의 보완점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서 제주 지역의

1) 許椿,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a.

일간 신문에서 오용이 잦은 말 몇 가지를 최근 2~3간의 구체적인 예를 적시하며 검토했는데,²⁾ 이 때 지면 제약으로 미처 다루지 못한 말을 논의하겠다. 대비를 위해 전국지, 다른 지역의 신문, 대학 신문, 잡지, 방송, 광고 등의 예를 먼저 보이고, 되도록 제주 지역 방송을 많이 보이되 흔히 틀리는 몇 말만은 제주에 국한하지 않고 든다. 이 글에서 검토한 내용이 제주 지역의 언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 언론의 풍조를 생각 없이 따라 하지 말자는 의도에서다. 기자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고 교열부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는 뜻이 있기도 하다.

제주의 신문을 고루 예시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모든 신문을 정기적으로 보지 못한 필자의 개인 사정 때문이다. 기사 본문 뿐 아니라 제목(이른바 헤드라인(head-line))을 많이 예시한 것은, 제목은 바로 눈에 띄는 일종의 포장이라 기사 정독(열독)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명 비판의 필요성을 절감하긴 하지만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성(첫 자음)만 밝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게다가 한두 신문 외에는 편집 기자가 명기되지 않으므로 제목을 예시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에 따른다.

우리말에 대한 여러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과는 별개로 규범적인 표기를 전제로 하고 검토하되, 쟁점이 있으면 가다금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제주 지역의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검토한 데다 제

—,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b.

—,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인문학 연구」 제8집(특집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a.

—, “韓國 放送의 外來語 發音 檢討”,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1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1b.

—, “國語 辭典의 發音 表記 補完”,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학회, 2001c.

—, “우리말 ‘표준 발음법’ 보완”, 「어문학」 제74집, 한국어문학회, 2001d.

특히 2001a:62~74'의 ‘틀린 단어 사용에 따른 발음 오류’는 이 글과 연관된다.

2) 許禧,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檢討—틀리거나 어색한 말”, 「濟州島研究」 제20집, 제주학회, 2002.

한된 지면 때문에 중요한 단어와 예시가 많이 생략되었음을 먼저 밝힌다. 글의 성격상 이론적인 논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실어와 신문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지적을 위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II. 本論

오랑캐의 침입을 경계하는 말인 '天高馬肥'나 콜레라의 중국식 표기인 '호열랄(虎列刺)' 처럼, 잘못으로 뜻과 표기(호열자(虎列刺))가 달라졌더라도 이미 굳은 것을 굳이 바로잡으려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특구 '심수(深圳)'를 아예 '심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괴이한 것에 흥미나 호기심을 가지고 좇아다니는 일을 말하는 '엽기(獵奇)'가, 지저분하고 때로 잔혹하기까지 하지만 새로운 충격을 줄 때 젊은 세대가 쓰는 말로('엽기(적)') 변한 예나, 얼마 전부터 유행한 이른바 '삼행시'³⁾를 보면 우리말이 악화되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다. 여기에 컴퓨터의 보급으로, LOL(Laughting Out Loud), Nglsh(English), 방가, 시러, 왜부짜바, 했어여, ~ 처럼, 어느 나라 없이 언어가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조어법적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중딩, 고딩, 은따, 넷맹, 컴맹, 번쇄, 컴쇄, 컴시인' 같은 말이나 '虛費(浪費), 劫姦(強姦)'⁴⁾을 '과소비, 성폭행(때로는 (성)추행)'이라 하는 예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다만 뜻의 왜곡과 변질은 늘 경계해야 하고, 언론 매체는 이런 말의 사용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지 특히 유의해야 한다.

'고수부지(高水敷地), 노견(路肩), 인터체인지(interchange)'를 '둔치, 갓길, 나들목'으로 바꾸어 정착 단계에 이르게 한 데는 언론의 힘이 크

3) "노(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벨(별 이상한 놈이랑 사랑하자면) ---, 라(나의 빈 가슴은 필로 채우나) ---"(00.10.22. K2TV '시사 터치 코미디 파일', '노벨상, 달라이 라마'로 삼행시를 지으면서)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4) () 안은 일본식 한자어임.

다. 그러나 ‘다람쥐(마우스), 셉틀(컴퓨터), 무른모(s/w)’ 같은 말은 아직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자국어의 뜻이나 발음을 따라 ‘컴퓨터’를 ‘电脑(电子计算机)’, ‘엘리베이터(elevator)’를 ‘电梯(升降机)’, ‘서울’을 ‘汉城’이라고 하는 중국의 예를 참고할 만하다. 일어의 잔재를 씻는 데는 물론이지만, 외국(래)어를 좋은 우리말로 바꾸는 일에도 언론이 해당 학회와 연계해서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⁵⁾

1. 감사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등 : ‘감사(부탁, 사죄, 약속, 축하)하다’는 ‘여 불규칙 용언’이므로 ‘감사 드립니다’로 쓸 수 없음에도, 이런 말들이 만연하고 있다. 현존 사전에는 ‘감사(하다)’가 ‘명사·형용사·자·타동’사로 나와 있지만, 문맥으로 볼 때 ‘은혜를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등은 매끄럽지 못하다. 게다가 ‘드리다’는윗사람을 위해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니, ‘보여 드리다’처럼 쓰는 말이다. ‘드리다’가 조동사로 쓰이면 ‘주다’의 높임말이지 ‘하다’의 의미는 아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99.8.27. 스대 교문의 플래카드)

감사드립니다(00.4.15. 서울시 강남·서초 ○·초 국회 의원 당선 사례 플래카드)

“축하드립니다. 당초 계획보다 ---”(01.10.24. 동아 C6면 ‘건강’ 무기명 제목:“두달만에 9kg감량... 꿈만 같아요”)⁶⁾

2. 강수량, 강우량 : ‘강우량’은 비가 내린 양이고 ‘강수량’은 눈, 비, 진눈깨비 등 하늘에서 내린 물을 합쳐 이른다.

“비 올 확률은 오전 40%, 오후 30%로 강수량은 ---”(01.5.23.07:40

5) ‘서론, 결론’을 포함, 여기까지는 ‘주 2’)를 바탕으로 한다.

6) 모든 인용은 원문대로이며, 바뀌는 문장과 단락은 /와 //로, 원문의 줄임표는 ...로, 필자가 줄임 부분은 ---로 표시한다. 신문명의 ‘일보, -신문’ 등은 생략하고, 기사의 면수와 제목을 밝힌다.

K1TV⁷⁾ 제주 뉴스 아나운서(남), '강우량'이 적확하다.)

"서울 지역 시간당 강수량, 구(區)별 강수량"(01.7.18.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〇·x 공동 진행자(아나운서, 남·여)와 출연자, 7.16.의 중부 지역 폭우 이야기이므로 '강우량'이 바람직하다.)

3. 개이다·개임, 설레이다·설레임, 해매이다·해매임 등 :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 하는 대중 가요 때문인지 일상화한 말이지만, 위의 예시어들은 우리말법에 어긋나는 말인데도 너무 자주 보인다.

"날씨가 개이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00.11.11. K1TV '내셔널 지오그래픽' 해설 ㄱ 성우(남)·번역 ㄴ 씨(여))

"--- 그제서야 서운함에 목이 메인다."(00.12.7. K1TV '영상 기록 병원 24시' 해설 성우(남))

시작은 설레임과 두려움을 동반한다.(01.9.21. 중앙 63면 '2001 중앙신인 문학상' ㄱ 당선자(평론)의 '당선 소감')

오늘, TV를 켜면 여자의 설레임을 만난다(01.11.19. 중앙 32면 'ㅎ 흡소 평' 광고 문안)

4. 건강하십시오, 친절합시다, 행복하세요 등 : '있다, 없다, 계시다' 외의 형용사는 현재나 그 동작이 현재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말인 '는'을 쓸 수 없으며, '있다, 계시다' 외의 형용사는 명령이나 청유의 꼴로 쓰일 수 없다. 이를테면, '걱정 마십시오'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야 한다.

친절합시다(99.9.29. MBC TV 프로그램명)

"어머, 너 정말 섬섬하나 봐!"(99.11.6.20:30 K2TV 극 '有情' 극 중 여 주인공이 친구에게 하는 말, 설마 작가가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앤더슨 "이제 엄마역 충실하고 싶어"(01.7.6. 조선 21면 '사람들' ㄱ 기사 제목: 'X-파일' 남녀주연 잇따라 퇴장, 중간 제목)

"권력의도 파헤치길" "스스로에 엄격하라"(01.7.31. 동아 A8면 '기획'의

7) 약자나 로마자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편의상 로마자로 줄여서 표기한다. 연도는 뒷부분만 줄여서 표기하고, 프로그램이 연속될 경우 자정을 넘겼어도 그 전날로 하였다. 필요시 10분 단위의 방송 시간과 성별을 밝혔다. TV 자막을 제외한 방송 인용은 " "을 하였다.

‘동아일보에/바란다’ 정리=스 기자 제목)

“그럼요! 전 깨끗하고 싶죠.”(01.10.7.13:20 SBS TV ‘충 생리대’ 광고의 모델(여)의 말)

5. 고동, 고동 : 기계를 움직여 활동시키는 장치는 ‘고동’ 이고, 卷貝는 ‘고동’ 이다. 다만 ‘수도 고동’ 은 ‘수도 꼭지’ 가 표준어이다(1988.1. 이후).

수족관의 크기에 따라 고동을 --- (99.11.5. 동아 ‘생활속 지혜’ 무기명, 여
기에서는 卷貝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동’ 이라야 옳다.)

“--- 소리와 고동 등을 살포해 ---” (99.11.26. K1TV 뉴스9 제주 뉴스 0
아나운서(여))

6. ‘公人’은 누구인가? : ‘공인’의 사전적인 풀이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국어연구원⁸⁾」’, 1. 국가나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 2. 公職에 있는 사람. ←私人(「민중」)이다. 1.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너무 모호한 설명이라, ‘--- 사람 중 널리 알려져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첨가해야 좋을 듯하다. 즉, 1.은 유명인을, 2.는 공직자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현재는 대개 2.보다 1.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론도 법적·사전적 정의와 사회 통념상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 언론은 사회적 영향력보다는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 같은 인기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언론 나름의 명확한 개념 규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연예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옷차림이나 말투 정도에 국한되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고 따라서 신뢰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갓 데뷔한 젊은(어린) 탤런트나 가수가 스스로를 공인이라 일컫고 언론 매체(특히

8) 「표준 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91), 「옛센스 國語辭典」(편집국 편, 민중서림, 1991), 「새 우리말 큰사전」(신기철·신용철, 금성출판사, 1988), 「2000년 신어」(국립국어연구원, 2000), 「연세 한국어사전」(연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주) 두산 동아, 1998), 「우리말 발음사전」(이은정, 백산출판사, 1992) 등의 직접 인용 사전은, 이하 각각 「국어연구원」, 「한글학회」, 「민중」, 「새 우리말」, 「신어」, 「연세」, 「백산」으로 줄여 표시한다.

방송)에서는 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막 첫 저서를 낸 전업 주부를 공인이라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위에 보인 1.의 개념으로도, 외부에 신상이 알려진 사람인 '유명인' 과, 윤리성과 영향력을 갖춘(갖춰야 할) '공인' 은 구별해 써야 하겠다. '유명인' 과 '공인' 은 서로 넘나드는 개념이지만 같지는 않다. '공인' 이 '공개된 사람' 을 줄인 말이 아닌 이상,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를 '공인' 이라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유명인' 으로 구별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아래의 예시에서 '공인' 을 '유명인' 으로 대치해 보라.

--- 공인이라 행동에 제약---(98.12. 「주부생활」 '○○○ 미국생활' 자신의 미국 생활을 얘기하며 ○ 코미디언(남))

--- 베스트셀러를 낸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신상 정보는 밝혀야 --- (01.2.24. 중앙 33면 B 기자 이○○ 씨 인터뷰 기사)

7. 근황(近況), 측근(側近) 등 : 자신의 요즘 형편을 얘기하며 '근황' 운운하는 묘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자신의 가까운 주위 사람을 '측근', 자신의 아내를 지칭하며 '부인', 자신의 이를 '치아' 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전적으로도 '측근' 은 '側近者' 의 준말로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니, 단순히 '아주 가까운 사람' 과는 말맛이 다르다. 심지어 '제 측근이 ---' 운운 하는 일도 있는데, 이런 현상에 언론도 한몫 거들고 있다.

"동성로과 두목 오씨는 측근 네 명과 함께 --- (버스 터미널을 경락 받았 습니다)." (99.1.12. MBC TV 뉴스 보도 기자(남), 맞게 쓴 예다.)

8. 나름(대로) : '나름' 은 명사나 동사 밑에 붙어, 그 됄됨이나 하기에 달림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람 나름, 할 나름이다.' 에서 알 수 있듯이 단독으로 쓰이지 못 하는 불완전 명사인데도, 일반인은 물론 언론 매체조차 마치 명사나 부사처럼 쓰는 것이 유행인 듯하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냥 시상에 그치는 시상식이 아니고 ---" (98.12.31.

K2TV '98 KBS 연기 대상' ㄱ 아나운서(남), '시상에 그치는 시상식'은 중복 표현이다.)

연예인들은 현대의 '우상'이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의무도 지워져 있다.(00.5.4. 중앙 사설 제목:연예인 매춘 밝힐 것은 밝히자, '지워져'는 '지워/지어져'가 좋다.)

이를 위해선 본인 나름대로의 분명한 사리판단의 --- (01.9.4. 제대 652호 8면 '기획'의 '가상인터뷰' ㄹ 기자 제목:"출석이라도 해야 살아남죠")

정부당국자는 "--- 역사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진전된 입장을 ---" (01.10.5. 동아 A1면 ㄹ 기자 제목:日 고이즈미총리 15일 訪韓)

--- 외교부가 내놓은 영사업무 개선 대책은 나름대로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다.(01.11.8. 한국 2면 '종합' 社說 제목:실무자 문책으론 안된다)

"--- 체천 약초 시장은 나름대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니다."(01.12.4.20:00 MBC TV 'TV 전국 기행' 해설 성우(남))

9. 날다, 나르다 : '나르는[飛], 날라가다[飛]'는 '나는, 날아가다'가 옳다⁹⁾.

만약, 제니가 일반복사지로 뽑은 자신의 보습을 본다면? 칼라가 날라버린 제니의 모습이라니...(99.4.9. 동아, 복사지 광고 문안)

부모32쌍이 투자한 '날으는 어린이집' (99.10.20. 동아 31면)

"(강풍에) 창고 지붕이 날라가는[飛] 등 ---"(00.9.1. K1TV 뉴스9 제주 뉴스 ㄱ 기자)

"--- 요금 청구서는 계속 날라오고[飛] 있습니다."(01.1.10. K1TV 뉴스9 ㄱ 기자(남))

(제비가) 낮게 나르면 비가 오고 높이 나르면 맑다.(01.7. 「기자통신」 '현장 생태학' 글/사진 ㄱ(ㄹ일보 차장))

김씨 아내에게 날라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는 ---//시 관계자는 "---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01.9.17. 한라 17면 '지역' ㅎ 기자 제목:7년전 팔아버린 차량에/뒤늦게 환경부담금 '말썽')

10. 다르다, 틀리다 : '다르다'고 해야 할 때 '틀리다'고 하는 일이 너

9) Cf. 주 2).

10) Cf. 주 1) 2001a, 66쪽.

무 많아서 조만간 '다르다'는 死語가 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이다.

“어머! 찌개 맛이 확 틀리네!”(99.11.3. MBC R ‘ㄹ 고추장’ 광고 모델 (여))

물이 틀립니다.ㅇㅇ나이스(01.7.16. 중앙 20면 ‘ㅇㅇ나이스/“오너쉽서비스”’ 광고, ‘오너쉽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론한다.)

(전주의 한정식은) 젓갈 하나로 반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다른 지역 밥상과는 차원이 틀리다.(01.4.24. 조선 40면 전주=스 기자 제목:영화제 보고 맛집 찾고... 마음은 벌써 전주에)

“--- 어른들이 보기엔 날씬해도 아이들이 보기엔 틀리다.”(01.11.15.19:40 K1TV ‘접속 어른들은 몰라요’ 해설 ㅎ 아나운서(여) 글 ㄱ 작가)

11. 당기다, 땡기다 : ‘불이(을) 옮겨 붙다(붙게 하다)’는 말은 ‘땡기다’이다.

“--- 내년 대선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당겨졌다고 합니다.(01.12.16.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ㅅ 기자(남))

“--- (월드컵에 대비한 각종 행사가 주민들의 욕구에 불을 당기지 못하고 있습니다.”(01.11.12. K1TV 뉴스9 제주 뉴스 ㅇ 앵커(남, 아나운서))

12. 두껍다, 두텁다 : 情誼나 인정이 많거나 사랑이 깊은 것은 ‘두텁다’도 ‘두껍다’이고, 두께가 큰 것은 ‘두껍다’이다. 이를테면 ‘두터운 모직물로 만든 옷, 두터운 비구름, 두터운 근육’은 ‘두꺼운’이라야 한다.

“오른쪽으로는 두터운 구름이 보이시죠?”(01.10.16. K2TV ‘뉴스 투데이’ 날씨 ㅎ 리포터(여))

“--- (프로 농구 경기에서) 나머지 팀들은 두터운 중위권을 형성했습니다.”(01.11.12. K1TV 뉴스9 ‘스포츠 뉴스’ ㅅ 기자(남))

고득점도 불안 치열한 눈치작전 해야//상위권 두텁게 형성... 수험생 ‘불안’ (00.12.3. 제주 ㄱ 기자 제목)

13. 띠다, 띄다 : 용무·직책·사명이나 빛깔을 조금 가지는 것은 ‘띠다’이고 ‘띄다’는 ‘뜨이다’의 준말이니, ‘사명을 띠다, 노기를 띄다, 눈에

띄다'처럼 쓰인다. 간단한 말인데도 틀리는 일이 많다.

--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없는 형편이다.(01.10.4. 동아 A21면 '전국종합' 예천=○ 기자 제목:경북 예천공항 폐쇄 위기)

"제주도, 활동도 눈에 띄네"(99.11.24. 중앙 강원/제주판 25면 제주=○기자 <제주시의 '기동교통봉사대'의 모습> 사진 제목)

14. -마는 : '겨울이지마는 날씨가 따뜻하다. 물건은 욕심이 남다마는 값이 비싸다. 꽃이야 지고 싶으라마는 바람이 불어 떨어지는 것이다.'처럼 쓰이는 '마는'은, 이미 있는 사실 뒤에 붙어 그 말을 시인하면서도 다음 말에 의문이나 불가능 또는 어긋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 또는 종결어미이니, 이른바 '逆接'에 가까운 말이다. 아래 예시에서 '마는'을 '그러나'로 바꿔보면 이 말이 잘못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명자 선생께서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97.10.27.23:50 K1TV '제주 저널' (?) 사회자(남))

"내일이 장애인 날입니다마는 한 의지의 장애인을 소개합니다."(01.4.19. K1TV 뉴스9 7 김종진 공동 앵커(남))

15. 모듬, 모듬 : '모듬 요리, 모듬회'인가? '모듬 요리, 모듬회'인가? 일식집 차림표는 거의 '모듬회'로 표기되어 있다. 「국어연구원」에는 '모듬'을 '山藥'을 말하는 심마니 은어 또는 '모임(=어떤 목적 아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의 잘못'이며, '모듬'은 '초중고교에서 효율적 학습을 위해 학생을 대여섯명 내외로 묶은 모임, (北)한데 모이어 합치는 곳'이라 풀이하고 있다. '모듬 꽃밭(=정원 한옆에 등글거나 모지게 만든 꽃밭), 모듬 냄비(=냄비에 해산물이나 야채 따위를 넣고 끓이면서 먹는 일본식 요리), 모듬매(=못매), 모듬밭(=두 밭을 가지런히 같은 자리에 모은 밭), 모듬밥(=여러 사람이 먹기 위하여 함께 담은 밥)' 등을 표제어로 보이고 있는데, '모듬걸이(=모두걸이와 비슷함)'는 있으나 '모듬 요리, 모듬전, 모듬회' 등은 없다. '모듬날, 모듬연장'은 고고학에서 쓰는 용어이다. 다른 사전에서도 '모듬 요리, 모듬전, 모듬회'를 볼 수 없다. 「새 우리말」은 '모듬, 모듬' 모두

‘모임’의 경상 방언이라 하고 있다. ‘모두다, 모디다’는 ‘모오다’의 방언이다. 「한글학회」는, ‘모듬, 모듬, 모듬’은 ‘산막의 심마니말’이고 ‘모듬/모듬, 모듬밭’은 ‘모임, 모듬밭’의 비표준어라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듬살이’를 표제어로 두고 ‘사회생활’의 다듬은 말’이라 풀이하고 있다. 「연세」 역시 ‘모듬살이(=공동생활, 공동체)를 예시하고 있으나, 이 말이 다른 사전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모듬살이’는 나중에 만든 말로 추정된다.

그런데 「바르고 고운말」은, ‘모듬’은 ‘모두 모아 놓는 것’이라며, ‘---깡이질 모듬으로 다 잘 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을 모듬으로 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하는 예문과 ‘생선회 모듬’, ‘모듬전’, ‘모듬살이(=사회생활)’ 등을 보이고 있다. 또 ‘모임’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이는 일’을 말하고, ‘모듬’은 ‘모두 모아 놓는 것’이니, 위의 예문에서 ‘모듬’을 ‘모임’으로 갈음하여 쓰기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¹¹⁾. ‘모듬’이 ‘산막’만을 가리킨다면, ‘모듬매, 모듬냄비, 모듬밭’처럼 굳어진 말을 설명하기 어렵다. ‘모듬일기(=서로 돌려 가며 쓰는 일기)’ 같은 신어(「신어」:100)도 참고할 만하다. 필자는, 일은 ‘모듬’으로 즉 모임(←모이다)으로 하되,회는 ‘모듬 냄비’ 같이 ‘모듬(←모오다)회’가 옳다고 본다. 논란과 함께 의문으로 남긴다.

--- 케이크 초콜릿 디저트 모듬에 커피가 합쳐진 ---(01.11.19. 동아 A2면 Metro 리빙’스 기자 제목: ‘텔테크族’을 아시나요, 맞게 썼다고 본다.)

16. 모습 : ‘모습’은 사람의 생김새, 자연이나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 자취나 흔적 등을 이르는 말이니, 눈에 보이는 형상에 써야 한다¹²⁾. ‘모습’을 ‘貌襲’으로 쓰는 것은 취음이다.

그래도 여성이 우뚝 설 수 있는 ‘대궐 안에서의 그녀’로 인해 나타났던 모습은, 현대사회가 차츰 다가서고 있는 ‘여성중심사회’의 어설픈 표본이었

11) 김윤학, 「바르고 고운말」, 박이정, 1996. 350쪽.

12) 米昇右, “61가지 뜻으로 남용되는 낱말 “모습””(「말과 글」 제16호, 한국교원기자협회, 12쪽)을 참고할 만하다.

다.(01.11.13. 제대 5면 '문화' ㅎ 기자 제목:네게 죄가 있다면/총명스러웠다는 것 뿐, '어설픈 표본'도 참 '어설픈' 말이다.)

17. -바기, -박이, -배기 : '나이바기→나이배기, 열 살바기→열 살배기, 점바기→점박이, 차돌배기→차돌박이'가 맞다. '-박이'는,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 무엇이 박혀 있는 곳이라는 뜻을 더하거나 한곳에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금니박이, 장승박이, 불박이' 등처럼 쓰이는 '-배기'는, 나이가 들었거나 그러한 아이, 무엇이 들어 있거나 차 있는 것, 특정한 곳이나 물건을 뜻한다. 이를테면 '차돌박이'는 양지머리뼈 한복판의 기름진 고기를, '나이배기'는 외모보다 실제로 나이가 더 나이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세살박이 딸을 두고있는 주부---(00.4.5. 한국 '기자의 눈' ㄱ 기자 제목: "아픈게 罪")

18. 바람[望], 바램 : 이제는 재즈맨으로서 평가받고 싶다는 바램이다.(99.3.12. 한국 스 기자)

지금의 논어해석 열풍은, 아이러니하게도 도움이 바랬던 현상이기도 하다.(01.4.30. 교수 제201호 12면 '쟁점' ㅇ 기자 제목: '도울 논어'를 보는 안팎의 시선)

19. 번지르, 번지르르 : 미끄럽고 윤이 나는 모양은 '번지르르'이지 '번지르'라는 말은 없다.

건물은 '번지르' 속은 '팅탕' /동부도서관 개관 감감(00.5.3. 제주 21면 서귀포=ㄱ 기자 제목)

20. 부딪치다, 부딪다, 부딪치다, 부딪히다 : '-치-'는 강세접사, '-히-'는 피동접사이다.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 그와 눈길이 부딪쳤다, 배가 암초에 부딪혔다, 자

전거가 마주 오는 자동차에 부딪혔다.↔자전거가 빗길에 자동차와 부딪
쳤다.'¹³⁾ 같이 쓰이는데, 혼동하는 일이 많다.

--- 추진중인 사업도 예산 지원 밖에 부딪쳐 있다.(01.11.17. 제민 4면 '중
합'의 '사설' 제목:예산지원이 관건이다, '부딪혀'가 적확하며 '있다'는 군
더더기 말이다.)

21. 비표준어(또는 방언) 남용 : '괜시리→괜스레, 꼭히→딱히, (눈을)
끔벅거리다→끔벅거리다, 끼어들다→끼여들다, 띠어내다→땀어내다, (코
를) 벌렁거리다→벌름거리다, 비져나오는 (웃음)→비어져나오는, 빼거덕
대는→빼덕대는/빼거거리는, 푸르르다→푸르다' 등, 대화에서나 통용될
말을 신문에서 쓰는 일은 삼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호랑이, 시라소니 ---//--- 표범이나 시라소니의 발자국보
다 훨씬 컸습니다."(00.7.3. EBS TV '하나뿐인 지구' 해설 성우(남)//00.10.9.
K2TV '뉴스 투데이'와 같은 날 K1TV 뉴스9 ㄱ 기자(남))

"다리에 피부를 띠어내기로 했다."(00.7.19. K2TV '병원 24시' ㄱ 성우
(남))

"어떤 사람을 ---"(00.10.2. K1TV '아침 마당' 〇 공동 진행자(남), 엉뚱
하게 띤 것을 말하는 관형사는 '애먼'이다.)

"--- 야물게 영글었습니다."(01.9.19. K1TV '뉴스 네트워크' 강릉=ㄷ 기
자(남))

그 중에서도 가을의 상징, 단풍은 당연한 푸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각
적 감동을 지니고 있다.(01.11.13. 제대 5면 '문화'의 '생활 속/과학 이야기'
ㅎ 기자 제목:가을타는 나무들/단풍에서 낙엽까지)

22. 빌다, 빌리다 : '빌려 주다, 빌려 오다'는 뜻의 '빌다'는 '빌리다'
가 표준어이다(표준어 사정 원칙(제6항)). 이를테면 '그의 말을 빌자면→
빌리자면, 이 자리를 빌어→빌려'라야 맞다.

13) 임동훈,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화관광부, 「우리말 바로 알기」, 1999. 23
쪽.

--- 당돌하게 이혼을 선언하고 나서는 아내를 빌어 오늘날의 물신숭배 풍조를 ---//---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00.1.1. 조선 신춘 문예 소설 심사평(ㄱ 소설가·ㄱ 평론가)과 ㅇ 씨의 문학 평론 당선 소감)

“--- 목격자들의 말을 빌어 보도했습니다.”(01.11.15.18:40 MBC TV 뉴스 아나운서(여))

23. 사이시옷 표기 오류(담배값·담뱃값, 부자집·부잣집 등) : 사이시옷 표기를 규정한 ‘한글 맞춤법(제30항)’은, 1933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1940), 재개정(1946), 3차 전면 개정(1988, 1989.3.)되는 곡절을 겪었다. 그만큼 논란도 많고 복잡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이를 제시하고 일일이 논의할 겨를이 없으나, 사전마다 표기가 다른 점(꼭짓점(「국어연구원」, 「한글학회」)/꼭지점, 넷과/내과, 인사(삿)말, 노래(랫)말, 두부(붓)국, 성묘(뭇)길, 우유(웃)빛, 맥주(죇)집 등), 수컷 제비는 ‘수제비[수제비]’, 수컷 여우는 ‘수여우[수여우]’가 되어 실제의 발음인 [순제비], [순녀우]와 달라지게 되는 점(☞ 「백산」:6), ‘-數’의 사이시옷 표기에 일관성이 없는 점(개수(個數), 호수(戶數), 횃수(回數) 등),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이면 사이시옷을 받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말이 어떤 것인지 발음법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그렇긴 해도, ‘노랫말→노래말, 댓가(代價)→대가, 바지가랑이→바짓가랑이, 번짓수→번지수, 소시적→소식적, 수사자→수사자, 안주거리→안줏거리, 잇점(利點)→이점, 장미빛→장밋빛, 전기줄→전깃줄, 혼자말→혼잣말’ 등 틀리는 말이 많다. 언론 매체의 혼란한 사이시옷 표기는, ‘한글 맞춤법’이 어려운 까닭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무관심과 무지 탓이다.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며 틀린 예를 몇 개만 보인다.

스피치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발성연습을 하고 있다. 배속에서 나오는 호흡을 느끼며 소리를 내는 것이 요령이다.(99.7.21. 조선 ㅇ 기자 제목:“큰 소리로 토박토박 말해요” 사진 설명)

14) 이와 관련한 논의는 주 1) 2001d, 92~93쪽, 96~97쪽을 참고 바란다.

때 속 깊이 전하는/감사의 새해 인사(00.1.27. 중앙 □ 유업 광고 문안)

“당신은 나의 낮의 햇님이에요”(00.3.30. K2TV ‘시사 터치 코미디 파일’ 자막)

때물 자국(00.7.2.18:00 SBS TV ‘호기심 천국’ 자막. 때를 씻어낸 물의 뜻으로 썼으니 ‘땀물’ 이라야 한다. 걸으로 드러난 자태 곧 몸매도 ‘땀물’ 이라 하며(예) 땀물이 흰하다.), ‘때물’은 특 트이지 못한 태깅이다(예) 때물을 벗다.)

채소값 폭등//--- 충북지역 채소값이 폭등하고 있다.(01.6.5. 중앙 25면 ‘중부’ 청두=○ 기자 제목과 본문)

담배값 인상//담배불, --- (01.6.16.20:50 MBC TV ‘뉴스 데스크’ 예고 자막. 굳이 따진다면 ‘담배’가 순 우리말인가(cf. ‘한글 맞춤법(제30항)’)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담뱃값’ 이라야 한다. 같은 날 20:59 뉴스 시작시의 자막은 맞게 되었다//01.11.20.09:30 K1TV ‘산불 예방 캠페인’ (산림청) 자막, ‘담뱃불’ 이라야 한다.)

--- 자식들을 동료에게 부탁하는 짓구가 담긴 영상물을 보면서 --- (01.11.12. 한국 4면 ‘정치’ ㄱ 기자 제목:달라진 DJ, 시의 구절인 ‘詩句’는 ‘시구’이다.)

--- 백달(뒤거래)는 몰라요(01.12.5.21:10 K1TV 뉴스9 자막)

“--- 우리 경제정책책임자들에게 최고의 핑계거리가 생겼다.”(01.12.7. 동아 A4면 ‘정치’ ㅂ 기자 제목:“경제팀 숫자늘음... IMF때와 닮아”, 다음 주 배포될 예정인 국회의원의 저서를 인용한 듯하다.)

서울 강남의 경우 매매값에 이어 전셋값도 --- (01.12.10. 중앙 37면 ㅅ 기자 제목:강남권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 ‘매매가/매매값, 전세가/전셋값’ 이라야 한다.)

24. 살지다, 살찌다 : ‘살진 암소, 살지고 싱싱한 물고기, 살진 옥토, 물이 오른 살진 과일’ 처럼 쓰이는 ‘살지다’는 형용사로 ‘살이 많고 튼실하다. 땅이 기름지다. 과실이나 식물의 뿌리 따위에 살이 많다.’는 뜻이고, ‘살쩍 뚱뚱한 사람’ 처럼 쓰이는 ‘살찌다’는 동사로 ‘몸에 살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다.’는 뜻이다(「국어연구원」). ‘살지다’는 사람에게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살진 여성들이여 석달이면 20kg 감량”(00.12.19. 제주 제목, “살쩍 여성들

이여 ---"라야 적확하다. '살진 놈 따라 붓는다.'는 속담을 상기하면 좋겠다. '살진 여성들이여' 다음에는 문장 부호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은 별론한다.)

25. 新造語 문제 : '먹거리'의 어색한 점은 앞에서 검토했다⁵⁾.

① 눈높이 : '눈+높이, 눈의 높이'로 만든 말이겠는데 학습지 광고 때 문인지 널리 퍼지고 언론에서도 의심 없이 쓰고 있다. 그런데 '눈높다(=무엇이나 늘 좋은 물건만 보고 찾는 버릇이 있다. 鑑識하는 힘이 뛰어나다. 眼識이 높다.)'와는 전혀 다른 뜻이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제 새로운 말로 정착된 단계이고(눈높이=어떤 사물을 보거나 상황을 인식하는 안목의 수준 (『국어연구원』)) '눈높다'의 명사형은 '눈높기'이니 구분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신어를 만들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거론하였다.

중고생 눈높이로 당당한 발언/ '꼬마 시민운동' 무력무력 영근다(01.11.19. 중앙 25면 'NGO' ㄱ 기자 제목)

250명 모집에 76명만 일자리 구한 채용박람회/ '눈높이'가 달라서... (01.10.30. 제주 23면 '사회' ㅇ 기자 제목)

② 도우미·지킴이 : '도우미'는 '93 대전 엑스포에서 처음 쓴 말로, 행사 안내를 맡거나 남에게 봉사하는 요원을 이른다. '지킴이'는 한 집이나 마을 공동 구역을 지켜주는 신으로, 터주신, 장승 등을 이른다(『국어연구원』). 조어의 일관성과 습득의 용이성을 위해서라도 '도움이'가 좋지 않을까 싶다.

안전 지킴이-도우미의 일생(01.12.4.18:00 MBC TV '생방송 화제 집중' 자막)

소상공인지원센터/창업도우미 자리매김(01.12.21. 제주 10면 '경제' ㄱ 기자 제목)

③ 라볶이 : 이 말을 언론에서 그냥 쓴다든지 상품(호)명으로 쓰는 일

15) 주 2).

은 아직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심지어 ㅂ사의 라면 제품 중 '라뽀끼'가 있고 미용실 상호에 '까끌래 뽀끌래'도 있다.

“국제결혼이요? 라볶이 같은 거죠!”(01.10.26. 중앙 20면 'Metrowide 메트로 와이드' 글=ㅂ 기자, 사진 ㄱ 기자 제목, 본문의 대화 구절을 인용한 제목이니 그렇다쳐도, 아직 사진의 표제어로 오를 말은 아니니 적어도 '라볶이'라 해야 바람직하다.)

④ 먹는 샘물 : 藥水보다 범위 넓은 '生水(=샘에서 나오는 맑은 물)'라 하는 것이 좋다.

⑤ 비 날씨 : 비날씨 운전 조심(901.9.11. 제주 23면 '사회' ㄱ 기자 제목, '비 날씨'는 신조어에 가깝다.)

⑥ 수타면(手他麵) : 손으로 쳐서 뺀 국수를 말하는 상품명인데 일어식이다.

⑦ 스타본색 : 재미동포 체조요정 '스타본색'(01.11.5. 한국 25면 '오늘의 사람들·외국어' 겐트(벨기에)=ㅇ 기자 제목,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영화 '英雄本色'에서 차용한 것이겠으나 어색하기 짝이 없다.)

26. 略語·俗語·卑語·隱語 문제 : 빨라지는 시대 변화와 컴퓨터의 보급에 따라 언어도 표기와 발음에서 더욱 경제성을 좇기 마련이라 약어가 일상화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다'보다 '피다'가 일상화하고 '중앙 도서관'은 '중도'로 줄여 말한다. 기호로만 표기하기도 하는데 문자도 일종의 약속된 기호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은 없다. 부동산 소개소 앞에 크게 써 놓은 '전안', '울수리'가 뭘까 하고 펴 궁금했는데, '전세 안고', 'all 修理'임을 알고 실소한 일이 있다. 언어는 줄여 쓰는 것이 속성인데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나아가 선도해야 하는 언론은 독자의 기호에 맞는 말을 써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무리한 약어와 속어·비어·은어를 사용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방송과 달리 신문은, 반말이나 욕설은 별 문제되지 않는다. 이 기회에 '車를 산' 사람과 '車를 뽑은'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드디어 뽑았습니다. LPG로요.”(00.4.12.12:00. MBC R 승합차 광고)

내년 유망종목은 미리 ‘쩨’ (01.10.31. 중앙 35면 ‘슈퍼 재테크/iMoney’
○ 기자 제목, ‘쩨하다’ (=속어: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다.)이지 ‘쩨’ 이란 명사는 없다.)

권력층은 ‘떡튀’ 하고 개미들만 당했다.(01.1. 「신동아」, 떡튀는 ‘먹고 튀기’ 이니 주식을 이용해 한꺼번에 이윤을 챙기고 손을 떼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신어」).)

27. ‘-이/-히’ 오류 : ‘깊숙히→깊숙이, 나지막히→나지막이, 딱이→딱히, 번번(番番)이(=여러 번 다)/번번히(구김살이 없이, 생긴 것이 암전하게, 지체가 상당하게), 때곡이→때곡히, 뚝뚝히→뚝뚝이, 散散히→산산이, 솔직이→솔직히, 수북히→수북이, 아스라히→아스라이, 切切히(=몹시 간절히)/節節히(=마디마디마다), 촉촉히→촉촉이’ 등 틀리는 일이 많은데, 부주의와 무관심 탓이 크다¹⁶⁾.

“딱이 하소연할 데가 없는---”(00.7.9.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ㄱ 기자)

“--- 솔직이 남는 게 없다.”(00.7.26. EBS TV ‘다큐 이 사람’ 해설 ㄱ 성우)

“--- 우직이 한평생 사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01.11.5. MBC TV ‘포토 에세이 사람’ 해설 아나운서(남), ‘愚直하다’의 부사형은 ‘우직히(이)’가 아닌 ‘우직하게, 우직스럽게, 우직스레’이다.)

“--- 깨끗히 승복해야 한다고 (빨아 놓은)---”(00.11.13. K1TV ‘뉴스 네트워크’ 제주 뉴스 ㄴ 앵커(아나운서, 남), 01.2.27.12:00 제주 MBC R ‘생활의 지혜’ 해설 아나운서(여))

--- 해녀들의 삶의 질곡이 때곡이 녹아있다.(01.11.3. 제주 15면 ‘문화’ 제목:200명 은평리 좀녀들의 의연한 삶 ○ 기자)

16) ‘-이, -히’ 오류를 발음과 연관지어 검토한 필자의 글(주 1) 2001a)을 참고 바란다.

28. -的 : 우리말의 조사 '의', 영어의 '-ic', 일본어의 'の'에 해당하는 말인 '-的'이 남용되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몸的, 마음的, 우리的' 같은 말까지 쓰이고 있으나, 우리말의 '-다운', '-스러운'을 생각해 보면, 어색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人間的/사람的'을 비교해 보라. '인적 쇄신, 교육인적자원부' 같은 말을 정부 기관이 주도해서 쓰고 있는 것도 우려할 만한 일이다.

'위層, 一個, 우리式', 靛門, 싸전(쌀塵), 간醬, 車入길, 泫入물, 非철(계절), 乞+어치=거러지, 餅子+떡=빈대떡, 函子+박=함지박, 僧+님=스님, 陰+달=응달, 鉢+이=바리' 등에서 보듯이, 우리말은 '고유어+한자어'의 구조가 많다. 그렇다면 '-的'도 언젠가는 부담감 없이 쓰일지도 모른다¹⁷⁾. '-的'이 쓰이지 못할 바는 없겠으나, 군더더기 말로 또는 유행처럼 뒷말에 붙이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테면 '동반자적 관계로의 전환을'은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이 훨씬 우리말답다.

"느낌적(-的)으로 무엇 같어요?"(00.12.24.18:20 K2TV '성탄 특집 일요일은 즐거워' 중 '스타 골든벨' 진행 1개그맨(?), 여기에서도 '-적'이 남용되고 있는 실상을 볼 수 있다.)

민주당 인적 쇄신론 확산//“희생양 만들지 말라”/인적 쇄신 공세 대반격(01.10.28.21:00 MBC TV '뉴스 데스크' 자막//01.11.3. 동아 A4면 '정치' 0기자, 제목:동교동 "일단 예봉은 꺾었지만...", '인사 쇄신(론)'이 바람직하다.)

公的자금 투입 만능 아니다//공적자금 상환 10~20년 미룬다(01.11.3. 동아 제목//01.11.19. 중앙 33면 '경제' ㅅ·ㅇ 기자 제목, '공공 자금'이면 좋다.)

인적쇄신 반대 '정면 돌파'(01.11.3. 제주 3면 '종합' 제목 청와대=본사 ㅎ 기자)

29. 戰鬪的 용어 : '김치 전쟁(일본 기무치와 국제 공인 규격 논란), 범죄와의 전쟁, 흡연과의 전쟁'처럼 전투적인 용어를 남발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다행히 제주에는 '스포츠 신문'이 없어서 이 점에서는 그나마 덜

17) 鄭龍起, “마음의 과 한漢 융합”, 「말과 글」 제69호, 한국교원기자협회, 1996. 25쪽. passim.

하다.

흡연과의 전쟁(01.11.20. K1TV 뉴스9 자막)

--- 즉석에서 돈을 빌려주는 '속도전'이 가속화되고 있다.(01.9.18. 제주 7면 'Biz&Money' ㄱ 기자 제목:대출경쟁 이번엔 '속도전')

자동차 업계 '신차 팔기' 총력戰(01.12.5. 제주 11면 '경제' ㄱ 기자 제목)

30. 젓다, 질다 : '젓다'는 '물이 묻어 축축하게 되다. 무슨 일이 버릇이 되다. 귀에 익다.'는 말이고, '질다'는 '속속들이 배어들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술에 젖어→절어'이다. 대중 가요의 '비에 젖어 이슬에 젖어 슬픔에 젖어 ---'에서 '슬픔에 젖어'는 '절어'라야 한다.

31. 치루다, 치르다 : '치루다'는 '치르다(=줘야 할 돈을 내주거나 무슨 일을 겪어 내는 것)'의 잘못 또는 비표준어다.

월드컵 이대로 치를 순 없다(00.7.21. 현재. 제주 공항 탑승구 부근 공익 광고 전광판, 01.6.경에 보니 '치를'로 바르게 되어 있어 반가웠다.)

"--- 조용하게 치를 방침---"(00.9.22.09:45 K1TV 제주 뉴스 〇 아나운서(여))

내가 소저의 몸값을 치뤘으니 --- (01.12.3.22:00 MBC TV 극 '商道' 자막)

32. 택, 턱 : 관계된 까닭이나 그만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은 '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턱도 없는 일이다.(01.11.6. 제주 2면 '종합'의 '춘추추동' ㄴ 국장 제목:대음(代飲)문화)

33. 통제 :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부분을 한 원리로 제약하는 일이 '統制'이니, 말려서 하지 못하게 하는 '禁止'와는 의미가 다르다. 그런데도 '통제=금지'로 쓰는 일은 시정해야 옳다.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한다.'는 왜곡이 심한, 구차스러운 말이다. '통제'의 의미도 모호하거나, '부분 통제, 전면 통제, 금지'는 또 어떻게 다른가?

출근길 교통통제를 ---//“--- 10여분간 교통통제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00.5.26. 동아 ○ 기자 제목과 본문)

“--- 신흥로는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기로 하였습니다.”(01.5.17.12:20
 제주 MBC R 뉴스 아나운서(여))

34. 漢字語와 고유어 : “이 죄인은 ‘요리조리’ 묶어서 ‘요린’ (공 모양) 들로 쳐라.”를 “如必字形縛之 以無偶石擊之(必자 모양(요리조리)과 같이 묶어서 ‘모서리가 없는 돌(無隅石:공 모양)’로 치라는 말)”로 적는다면 착각이나 오해 없이 기록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¹⁸⁾은 지극히 타당하지만, 대체로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간명성이 있으니 이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언론 매체에서 자주 쓰고 있으나, 되도록 고유어를 많이 발굴하여 널리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유어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진 맥진(氣盡脈盡)하다’와 ‘깁신못하다’를 비교해 보라. ‘겸연(慊然)쩍다/계면쩍다, 권연(卷煙)/궐련, 지리(支離)하다/지루하다’처럼 이미 변한 말이나 취음을 굳이 한자로 쓰거나 한자어를 사용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음식을 주문하고 점연적었는지 --- (00.6.29. 조선 글=츠 기자 ㄱ 텔런트(여)와 인터뷰).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바람에 한자어로 바뀐 말도 많다. 房, 醋, 醬, 燈은 물론 (나중에 한자로 쓴) 원래 우리말이다. 또, 부할 富, 귀할 貴, 천할 賤, 농사 農, 정사(정치가 아님) 政, 경사 慶, 장수 將, 장수 帥처럼 뜻풀이가 우리말인 것 또한 말할 것도 없다. 우리말 칸을 間으로, 군을 軍으로, 쟁이를 匠이로, 편을 餅으로까지 한자화한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¹⁹⁾. 그러나 한자와 고유어의 결합은 ‘江물, 藥밥, 同慶→同품, 越牆→越담’처럼 자연스러운 일이고, ‘朔月黃, 諱之秘之一→사글세, 흐지부지’처럼 한자어에서 우리말로 변한 말도 있다.

좋은 우리말을 두고 일른 와 닿지 않는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자를 단순히 한글로

18) 서재극, “한글 전용의 필요성”, 「한글 새소식」 제219호, 한글학회, 1990. 12쪽.

19) 장철, “터무니없는 탈로써 엉터리없는 트집”, 「한글 새소식」 제233호, 한글학회, 1992. 6쪽.

쓰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옥수사/다마쓰시, 이수사’를 보고 무엇인지 알겠는가? 일식 음식점의 간판들이다(99.11.15. 현재, 서울 강남구 소재). ‘다마쓰시(‘스시(すし)’가 맞는 표기임)’라는 한글 표기 간판은 어설 표기 짝이 없다. ‘수사’는 ‘壽司’이고, ‘옥, 이’는 ‘玉, 李’로 店主의 姓이다. ‘이수사’는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李壽司, Lee Sushi, りすし’라고도 썼는데 ‘りすし’ 또한 재고해야 할 표기이다.

되도록 고유어를 써야 할 말은, ‘高水敷地→둔치/강터, 금명간→곧, 금일→오늘, 부상하다→다치다, 敷地→(용)지/터/땅/면적, 역할→구실/노릇/소임/할 일, 익일→이튿날, 철야→밤샘, 초래하다→부르다, 側→쪽, 瑕疵→잘못, 欠(‘협’의 원말임), 현관→문간, 화재→불’ 등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일어의 잔재를 순화하는 일은 별론한다.

“청소년 문화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99.11.3.18:10. 제주 MBC R ‘제주는 지금’ ㄴ 공동 진행자(여, 아나운서), ‘不在하다’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영어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않다. ‘없기 때문에’라면 되는 것을 굳이 현학적인 한자어를 쓰니까 어색해졌다.)

음식을 주문하고 점원찍었는지----(00.6.29. 조선 글=츠 기자 ㄱ 텔런트와의 인터뷰 기사, ‘계면찍다’가 바람직하다.)

35. 漢字語 오·남용 : 한자어를 오용하는 것은, 지식 부족과 사실 미확인 탓이다. ‘뒷말의 부당한 생략’에서 전술한 대로 명사형의 한자어로 끝내는 제목(문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民草, 死體, 一石二鳥’ 같은 일본식 한자어는 하루바삐 우리말로 고쳐야 한다.

36. 햇빛, 햇벌 : 햇빛’은 해의 빛(日光)을 말하니 ‘설날의 아침 햇빛, 햇빛을 보지 못하다.’처럼 쓰이고, ‘햇벌(준말은 ‘벌’)은 해의 내리쬐는 뜨거운 기운이니 ‘햇벌에 그을다.’처럼 쓰인다.

“햇빛에 살갓이 타서 ---”(00.7.28. K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동 진행 ㄴ 아나운서(여), ‘햇빛에’보다 ‘햇벌에’가 적확하다.)

강희남 목사 글 6년만에 햇볕(01.12.7. 한겨레 29면 '사람' 전주/비 기자 제목, '뜨거운 기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햇빛'이라야 한다.)

햇빛 조심하세요//의료반 당직의사는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면서 남녀노소 구분없이 두통을 호소하는 ---”(01.5.26. 한라 9면 '2001 제주세계 섬 문화축제' 면의 '이모저모' 특별취재반 제목:신기한 의상·춤·음악에 매료 短信들의 소재목과 의사의 말, 여기에서도 '햇빛'보다 '햇볕'이라야 적확하다.)

37. 확·포장 : '확장포장(擴張鋪裝)'을 줄인 말이므로 '확·포장'은 옳지 않다.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를---”(00.7.14.15:00 MBC R 제주 뉴스 아나운서(여))

서부산업도 확·포장 “순조”(00.10.13. 제민 ○ 기자 제목)

38. 후덥지근하다, 후텁지근하다 : 불쾌하게 무더운 기운이 있으면 '후터분하다'고 하며, 몹시 후터분하면 '후텁지근하다'고 한다.

“---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00.8.8. K2TV '클리! 날씨@생활' 진행 ○ 기상 캐스터(여), 01.6.6. K1TV 뉴스9 '기상 정보' ○ 기상 캐스터(여), 01.7.3.11:00 SBS TV '날씨와 생활 경제' 기상 예보 리포터(여))

“--- 제주도 지역은 구름만 낀 후텁지근한 날씨였습니다.”(01.5.7. K1TV 뉴스9 제주 뉴스 x 기자(남))

39. 고쳐야 할 다른 말들 : 위에서 따로 항목으로 들지 않은 말을 몇 가지 검토한다.

① 문맥상 또는 문법적 오류, 어색하거나 틀린 표현, 재검토해야 할 말 등 : 문맥에 따라 적당한 말을 쓰는 일도 중요하다. “부산영화제가 한단계 더 발전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돈 문제와 연결된다는 얘기다 (01.11.19. 동아 A7면 '오피니언'의 '기자의 눈' ○ 기자 제목:부산영화제 “돈이 없어요”).에서, '더 발전하느냐 마느냐'는 '더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라고 해야 어색하지 않다. 다른 한 예로, '값없다'에는 1. 너무 귀해 값을 칠 수 없다. 2. 하찮아서 값이 나가지 않다. 무가치하다.'는 상반된 뜻이 있

다. 대개 1.보다 2.의 뜻으로 알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생명의 말씀을 값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00.1.16. 현재. 제주시의 전봇대에 붙은 선전지(‘시는 기독교 신학원’ 주최 성경 교육 과정),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틀린 말이다. 위의 설명 1.의 뜻이라면 ‘값없는 (생명의) 말씀’ 이라야 한다. 여기에서는 아마 ‘무료’ 라는 뜻으로 쓴 듯한데, 그렇다면 다른 말로 바꿔야 한다).

현직이 아닌 태도 과거의 직함으로 부르는 것은 私的인 자리에서나 통용될 일이다. 그런데 방송에서도 이렇게들 부르고 있어서인지 마치 관행처럼 되어가고 있으나, 바로잡아야 할 말이다. ‘한 번 장관(의원, 총장) 이면 영원한 장관(의원, 총장)’ 인가? 동료나 선배의 부인을 ‘사모님’ 이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 교수입니다(전화 자동 응답기의 녹음).’ 처럼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경우도 많은데, 의도적이지 않다는 데에 즉 틀린 말인 줄 모른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방송에 출연한 연예인끼리 ‘(하늘 같은) 선생님’ 운운 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스스로 ‘측근’,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부인, 자녀’, 자신의 이를 ‘치아’ 라 하는 황당한 일도 같은 맥락이다. ‘아빠(자기 남편을 말함)께서 웃으시니 자녀들도 좋아하죠.’ 하는 데는 할 말을 잃는다. 시부모가 아닌 자신의 친부모를, 더구나 살아 있는 부모를 가리켜 ‘아버님, 어머님’ 운운 하는 일 또한 시정해야 한다. 심지어 문인조차 이런 말을 예사로 쓰고 있다(우선 아버님이 타계하신 뒤 외로움과 힘든 싸움을 하시는 어머님께 이 책을 드리고 싶다.(○ 시인,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책머리에’)). 아직도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 라고 하는 일(99.11.19.20:10. MBC R ‘집중토론’(상대적 빈곤에 대한 토론) 스대 ㄹ 교수)은 겸양이 지나쳐서인가? 연예인이 스스로를 ‘공인’ 이라 하는 일도 문제가 있는데, 이 점은 전술했다

‘가당찮다, 가깝다/간지럽다, 갑자기/문득, 개피→개비, 갱신(更新)/경신, 거칠음→거, 걸다/걸쭉하다/걸쭉지근하다, 것다/젯다, -게 마련이다/-기 마련이다, 결제/결제, 괜찮겠냐고→괜찮겠느냐고, 굉장하지도 않지 뭐야!→굉장하지 뭐야!, 굉장히, -구요→고요, 군→군인, 군대(“軍성범죄 파면까지”(00.6.29. 조선 ○ 기자 제목, 軍연구원이 軍무기사업 비판(01.11.5. 한국

30면 '사회' ㄱ 기자) 등), 궁둥이/엉덩이, 꺾석 재판→결석 재판('꺾석'은 일본어로 舊法의 용어임), 귀걸이/귀고리, 그슬리다/그을리다, 그는 극구 혼자 떠났다.→기어코('극구'는 온갖 말을 다한다는 말이다), 그런 어느 날→그러던('그런'은 '그러한'의 준말로 상태를 나타내고 '그러던'은 '그렇게 하던'의 준말로 동작을 나타낸다.), 근무 년수(年數)→연수(00.4.29. K1TV 뉴스 ㄱ 기자), -길래→기에, 만두 속→소, 까무러지다/까무러치다, 깨치다/깨우치다, 껌데기/껌질, 꼭 알맞다→뚝(딱) 알맞다, 꿩기다/꿩이다, -ㄴ가/-ㄴ지, 나누다/노누다, 나는 커피를 들고→마시고('들다'는 '마시다(먹다)'의 높임말이므로 내게 쓸 수 없다), 나름대로, 내노라 하다→내로라 하다, 내 자신→나 자신, 너르다/넙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넘보다/노리다, 네 게임을 쳤다→했다, 노고를 치하하고→위로('공로를 치하하다'처럼 쓰이는 '致賀'는 남의 경사에 대해 하례한다는 말이다), 놀라다/놀래다, 놀라우리 만큼→놀라울 만큼, 누이다/눅히다, 눈꼬리→눈초리, 늘이다/늘리다, 다리다/달이다, 담다/담그다, 대폭적으로→대폭, 더 이상→그 이상, 덕분에/때문/탓, -던/-든, -던지/-든지, 덤테기→담타기/덤터기, 도막/토막, 돌구다/돌우다, 두 형제/형제, 두드리다/두들기다, 두리몽수리, 두리몽술하다/두루몽실하다→두루몽수리, 두루몽술하다, 두 모금에 마시고→두 숨에 마시고(두 모금 마시는 것이 아니다), 등지/등우리, (뒤)쳐지다→(뒤)쳐지다, 들르다/들리다, 들이켜다/들이키다, 때우다→때우다, -르계/-르계, -르런지/-르른지→르는지, -르려고/-르라고→르려고, -르려야/-르래야→르려야, -르밖에(요)/-르 수밖에, 말야→말이야, 맞히다/맞추다, 매다/매다, 매끄러운 다리[脚]→매끈한 다리(매끈거리다(대))=(반드러워 자꾸 밀려 나가다<미끈-. 매끈하다=흙이나 거친데가 없이 부드럽고 반들하다.<미끈-. 매끄럽다=거칠지 아니하고 반들반들하다<미끄-), 매무새/매무시, 맥주 한 잔에 얼굴을 붉히고→얼굴이 붉어지고('붉히다'는 부끄럽거나 성이 나거나 하여 얼굴빛을 붉게 한다는 말이다. 두 말의 쓰임은 문맥에 따라 다르다.), 매어지다/미어지다, 모듬/모듬, 목돈/뭇돈, 몰아부치다→몰아붙이다, 물밀듯이 빠져나갔다→몰려왔다, 뒤킬래→뒤키에, 밀어부치다→밀어붙이다, 발자국 소리→발걸음('발자국'은 표시나 모양이다.), 바치다/받치다/받히다, 박이다/박히다, 밤붓짐→단붓(單襟)짐(00.5.31.

KITV 극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L·B 텔런트(여)), 발다/발이다/발치다, 벌
 이다/벌리다, 벚꽃나무→벚나무, 보라/보여라/보이라, 보상금/포상금, 보
 험금/보험료, 본따서→본떠, 불상(성)사나운→불쌍사나운, 부모를 잃고→
 부모를 여의고(돌아가시고)(‘여의다’는 자기 자식·손아랫사람·친구가 죽었을
 때 하는 말이다), 부비다→비비다, 분명 다르다→분명히(‘분명’은 명사이다),
 불가능입니다→불가능합니다, 비끼다/비키다, 빠끔히 쳐다보았다→뻘히
 (‘작은 틈이나 구멍이 작고 또렷이’가 ‘빠끔히’이다), 빠르다/이르다, 사형 언도
 →선고(‘言渡’는 ‘いいわし’를 혼동한 일본어로 舊法의 용어임), 산뜻하다/상
 큼하다, 삼가하다→삼가다, 생리(生理)→月經, 經度, 달거리, 몸엿것(‘생물
 이 살아가는 원리’인 ‘생리’는 아무래도 어색한 말이다. 직설적이고 외래어인 ‘벤스’
 는 말할 것도 없다), 술(담배)을 먹다·마시다·피우다(‘술(담배)을 먹다’는
 표현이 조선조에도 있긴 했지만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다’가 바람직하다), 승강
 이/실랑이, 시간/시각, -(시)오/-(시)요, (쌀을) 팔다/사다, 썩이다/썩히
 다, 썩여진→쓰여진/썩어진, 아는 체(척)하다/알은체(척)하다, 아무려면/
 아무려면, 안쓰러운 시선→안쓰러워 하는, 안절부절하다→안절부절 못하
 다, 안쪽/안팎, 액화가스→액화석유가스(LPG(liquefied petroleum gas),
 LNG(liquefied natural gas)는 액화천연가스임), 앓다/앓는다, 애꿎는/애꿎는, 어
 떤/어느, 어느 쪽도→양쪽 모두, 어줍잖은 사랑→어쭙잖은, 여성 상위 시
 대→여성 우위 시대, 역한 냄새가 어우러져→뒤섞여(‘어우러지다’는 여럿이
 조화된 경우에 쓴다), 열쇠를 열러→자물쇠를 열러, 염려 말아요→염려하지
 말아요, 웬/웬, 웬지/웬지, 용트림/용틀임, 웃-/윙-, 웃웃/윙웃, -(으,이)렸
 다→(으, 이)렸다, -이어요/-이에요(딸이에요/딸이에요, 선수이에요/선수예요,
 선수이어요/선수여요, 춘향이에요/춘향이어요, 아니에요/아녜요, 아니어요/아녀요),
 일절(一切)/일체, 임신부→임산부(임부와 산부), 있을까 말까입니다→있을
 까 말까 합니다, 전셋값→전세금, -的, 젓다/질다, 젓히다/제치다/제키다,
 좇다/좇다, 좋으니→좋니,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좋은 하루를 보내십시
 오, 주책없다/주책이다, 죽어 있는→숨져 있는, 止揚/志向/指向, 진심을
 다해→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제/채, 찻찻하다→점점하다, 차선을 그리다
 →차선을 긋다, 찰지다→차지다, 책상에 앉아→책상 앞에 앉아, 첫 발자

국을 떼다→찢 발걸음, 첫번째→첫째 번, 추켜세우다/치켜세우다, 커튼을 닫고→치고, 털다/떨다, 토픽(topic)란→토픽난(cf. 학습난→학습란(欄)), 패인→팬(파인), 팻말/뜻말, 표시/표지, 피로 회복→피로 해소, -하노라고/-하느라고, 한편→한쪽, 한편, 해치다/해치다, 행여라도 초라한 모습을 보일까봐→혹시라도(‘행여라도’는 ‘바라건대, 다행히, 운 좋게’의 말맛이 있다.), 허접쓰레기→허접쓰레기(--- 좋은 책들을 읽지 않고 허접쓰레기들에 젊음을 허송한단 말인가.(ㄱ 시인 “워크아웃 직전의 문학”(『현대문학』, 01.1.)(「리트피어」(창간호 01.3.)에서 재인용)), 홀몸/홀몸, 홀홀단신→헐헐단신(子子單身), 흐리멍덩하다→흐리멍덩하다(하리망당하다), 희노애락(喜怒哀樂)→희로애락, 희희낙낙(喜喜樂樂)→희희낙락’ 등을 틀리기 쉽거나 구분해야 할 말로 예시한다.

스타로서의 자의식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00.6.5. 조선 B 기자(‘미션 임파서블2’ 홍보차 내한한 톰 크루즈 인터뷰 기사), ‘자의식’은 자기 자신이 처한 위치나 자신의 행동, 성격 따위에 대해 깨닫는 일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말한다. 사전적으로야 큰 오류가 없지만, ‘자의식이 넘치는 것’은 ‘자의식 과잉’이라는 심리학 용어이다. ‘자의식’은, ‘자부심’이 바람직하다.)

② 순화해야 할 말 : ‘김마끼→김말이, 내역→내용·명세, 명일→내일, 邦畫→우리 영화, 雨雷→우레, 입장→처지/태도/주장/관점/생각/방침/견해, 전향적으로→적극적으로/진취적으로, 엑기스→진액’ 등으로 순화해서 써야 한다. 고유어인 ‘우레’를 한자 ‘雨雷’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은어도 순화해야 할 대상이니, 이를테면 ‘왕따’는 ‘해코지질/해살질/구박질’²⁰⁾로 고치는 일을 고려해 봄 직하다.

최근 철도청에서 100여개의 일본어와 한자투의 용어를 순수한 우리말이나 우리식 표현으로 고쳐 시행한 일은(01.8.31. 중앙 29면 ‘사회’ 대전=ㄷ 기자 제목:철도용어 日帝잔재 털이) 시사하는 바 크다. ‘보선(保線:철도 선로를 보호 관리하는 일)→시설 관리, 객화차(客貨車)→수송 차량, 대합실→맞이

20) 소범, “‘왕따’→해코지질/해살질/구박질”, 『말과 글』 제85호, 한국교열기자협회, 2000. 42~44쪽.

방, 월승(越勝)→더 가기, 전도역(前途驛)→다음 역, 불결개소(不潔個所)→불결한 곳, 행선지→길머리,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좋은 하루를 보내십시오,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등으로 바꿨다고 한다. ‘- 같다’가 오·남용되는 실정이라 더욱 반갑다.

③ 우리말 단위 명사 활용 : ‘1500천 원’은 우리식으로는 ‘150만 원’이다. 영어권에 ‘만’ 단위가 없으니 나타나는 일인데, 000 다음에 ,을 찍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어 ‘本’은 식물, 本草, 막대기 등 가늘고 긴 것을 세는 단위인데, 영화 편수를 셀 때도 ‘本’이라고 한다(예) 二本同時上映-우리식은 ‘篇’이다). ‘원고지 50枚, 나무 100本(株), 돼지 100頭’는 ‘50張, 100그루, 100마리’면 족하다. ‘묘지 한구에 1200프랑’(01.12.21.18:10 MBC TV ‘생방송 화제 집중’ 자막) 같은 어이없는 말도 보인다. 뾰를 세는 단위는 ‘장, 基’이고, ‘具’는 시체를 세는 단위이다. 묘지는 땅을 말하니 단위가 달라야 한다. ‘갓(말린 식료품 등의 열 모습을 한 줄로 엮은 단위:조기 한 ~, 고사리 한 ~), 고리(소주 10사발), 되지기(1/10마지기, 씨앗 1되 뿌릴 땅 넓이), 모숨(길고 가느다란 물건이 줌 안에 들 만한 수량. 가늘고 긴 모, 푸성귀, 실 같은 것의 한 줌:담배 한 ~, 삼실 세 ~, 풀을 한 ~ 뽑다), 물(옷의 다음 빨래 때까지의 동안:두루마기를 세 ~째 빨았다), 보(돼지, 곰 등의 쓸개 하나치:곰 쓸개 세 ~), 채(인삼 100근)’ 등의 우리말 단위를 살려 써야 한다²¹⁾.

④ 재검토해야 할 말 : 서울의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이란 명칭은 재고해야 한다.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거나 오래도록 사적을 전하여 잊지 않게 하는 것이 ‘기념’이고, 이를 위해 세운 집이 ‘기념관’이다. 즉 ‘기념관’은 뜻깊은 일이나 위인 등을 기념하기 위해 사적, 자료, 유품 따위를 진열하여 둔 집이다. 그래서 ‘회갑 기념 논문집, 기념 행사, 유관순 기념관’처럼 쓰인다. 그런데 전쟁을, 회상할 만한 뜻깊은 일이나 전할 만한 사적이라 하기 어렵다.

21) 정재도, 「샘술말과 샘날말의 어울림」, 「말과 글」 제72호, 한국교열기자협회, 1997, 74~76쪽.

장진한, “단위명사 통일”, 上소, 19~29쪽. 등을 참고할 만하다.

'전쟁'을 잊지 않기 위해 지은 집은 '기념관(memorial)'보다 '기록관(library)'에 가깝다. 특히 거의 매년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한 피해자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전쟁 기념관'은 '전쟁 기록관(또는 전쟁관, 전쟁 박물관)'이 적확하다.

40. 其他:

① 기자만 아는 기사(문장 또는 표현) : 독자가 정독해도 의미 파악이 잘 되지 않는 기사가 적잖은데, 기사를 항상 독자의 처지에서 써야 한다. 눈치로 뜻을 헤아리게 되는, 꼼꼼하지 못한 글은 기자의 부주의 탓이 크다. 필자가 읽으며 곤혹스러웠던 기사 역시 너무 많아 여기에서는 짧게 예시하고, 별도로 상론하겠다.

여성범죄수사관실은 10일 위자료를 빼돌린 의사와 세입자를 성폭행한 집 주인,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전 애인을 스토킹한 개그맨 등 4명을 적발, 기소했다고 밝혔다.(00.5.11. 조선 31면 ○ 기자 제목:파렴치 남성/女수사관에/줄줄이 달미, 문장이 너무 긴 데다 적당한 곳에 쉼표를 찍지 않아 정말 기자만 아는 내용이다. 별개 사건들을 묶었는데, 1). 의사와 세입자를 성폭행한 집 주인 2). 스토킹한 개그맨'이 아니고 1). 위자료 빼돌린 의사 2). 성폭행한 집 주인 3). 스토킹한 개그맨', 이렇게 세 사건인 듯하다. 집 주인이 위자료를 빼돌린 의사와 세입자 함께 2명을 성폭행했다는 것이 아닐 테니 '의사와,'라야 한다. 그런데 3사건에 왜 4명을 기소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딘가 2명이 있을 텐데 '의사들' 따위로 밝혀지 않았다. 아니면 같은 사건이 다른 데서 2번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적발, 기소했다고'는 '적발·기소했다고'가 적확하다.)

이총재 “보석같은 역할” 김용갑 추켜세워(01.6.21. 문화 5면 '정치'의 '정가클럽' ㅂ 기자 제목, 누가 누구를 치켜세웠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총재(는) “보석같은 역할”(이라고) 김용갑(이) 추켜세워' 인지 '이총재(가 김용갑은) “보석같은 역할”(이라고) 김용갑(을) 추켜세워' 인지 모호하다. '추켜세워'는 '치켜세워'의 잘못이다.)

이책은 “윌러드”란 별명이 붙여진 클린턴의 패니스의 명상으로 끝을 맺는다.(01.7.21. 한겨레 말리부/AP 연합 무기명 제목: '원초적 본능' 작가 에스 테르헤즈/클린턴 성추문 소설책 펴내, 1). 클린턴의 별명이 윌러드인가 2).

클린턴의 페니스 별명이 윌러드인가 3). 페니스의 명상을 클린턴이 했는가 4). 클린턴의 페니스에 대해 작가가 명상했는가 5). (비유적으로) 클린턴의 페니스가 명상했는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거리, 문장 부호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 3)이라면 '붙여진 클린턴의, 페니스의' 라야 하나 그러면 '페니스에 대한 (작가의) 명상으로' 로, 1), 5)라면 '붙여진 클린턴의, '페니스의 명상' 으로' 정도라도 되어야 한다. '라도 되어야 한다. 2), 4)라면 '붙여진 '클린턴의 페니스' 에 대한 (작가의) 명상으로' 로 즉 '이책은 "윌러드"란 별명이 붙여진 '클린턴의 페니스' 에 대한 작가의 명상으로 끝을 맺는다.'로 고쳐야 한다.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직역하는 바람에 정독해도 내용 파악이 어려운 글이 많은 것은 큰 병통이다.)

남쿠릴 어장에서의 한국 풍치어업을 금지하려는 일러 협상과 관련, 외교부 추규호(맨 오른쪽) 아태국장과 조환복(가운데) 국제경제국장 등이 7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01.10.8. 한국 3면 '종합' ㅂ 기자 사진 설명 제목: "정부 입장은...", 관련 기사 전체를 읽어봐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정부의 처지를 설명했다는 말이 없다. 답답한 일이다.)

국고 130억여원 들여 2006년 완공/리조트호텔 형태... 749명 수용 규모 (01.5.26. 제주 22면 ㅇ 기자 제목: 제주대 도내 최대 기숙사 건립 부제)///--- 모두 52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01.5.26. 한라 13면 ㅅ 기자 제목: 원거리·우수학생 유치 '걱정 끝', 기존 기숙사 수용 인원을 포함하느냐 여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지만 기사 본문에 인원 총계나 이 점에 대한 설명이 없고, '제주'는 아예 제목을 총인원으로 뽑아 독자를 혼동하게 한다.)

閣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의·의결/카드 소득공제 500만원 확대 (01.6.6. 제주 6면 <연합> 제목, 카드 연간 소득 공제 한도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기사인데, 독자는 현행 한도 300만 원에 이번에 확대한 500만 원을 더해 합계 800만 원으로 오해하기 쉽다. '카드 소득공제 500만원으로 확대'가 여백 문제로 어렵다면 차라리 '카드 소득공제 200만 원 추가'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조씨는 "제주도인 본래의 비교적 특이한 형질을 아직 까지 보존하고 있으며 한국내에 분포가 적은 왼쪽 이마 발달형이 많은 점은 제주인의 장래에 고무적인 일이다."고 평가했다.(01.11.4. 제민 ㄱ 기자(한·중·일 국제미술해부학 심포지엄('심포지엄(symposium)' 이 맞다.) 관련 기사), 기사 전체를 아무리 읽어봐도 왼쪽 이마 발달형이 많으면 왜 고무적인지 알 수가 없다. 내용 소개는 독자 위주로 해야 마땅하다.)

② 번거롭고 군더더기가 많은 문장 : 특히 언론 문체는 간결하고 명확히 써야 한다. 군더더기 가 많으면 전달하려는 알맹이는 가려진 채 겉멋에 넘치는 현학적인 문장이 되기 쉽다. 고쳐야 할 버릇이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제주 지역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이 지역어에 내재한 음운 규칙을 세우고 이 지역어의 음운 변동의 특징을 규명하려고 하였다.(01.9.11. 제대 653호 4면 '학술' 2대 출판부 광고, 아마 책의 '머리말(또는 서문)'을 옮겼을 것이다. 문장이 너무 긴 데도 쉼표를 적절히 쓰지 않았고 일본식 한자어('입장')를 쓴 점은 차치하고라도, '바탕으로 하여'의 '하여'는 군더더기 말이며 한 문장에서 똑같은 말('이 지역어')을 중복한 것도 시정해야 할 일이다.)

제주시내 오현단 맞은편에 있는 방호벽 곳곳이 균열돼 사고 우려가 높아 이 지역 주민들이 서둘러 정비해줄 것을 제주시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01.9.11. 제주 23면 '사회' 2 기자 사진 설명,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어 매끄럽지 못하고 뜻 전달이 어렵다. 주민들더러 정비하라는 말로 알았다가 다음을 읽고야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앞 문장을 구태여 한 문장으로 쓴다면, '제주시내 오현단 맞은편에 있는 방호벽 곳곳의 균열로 사고 우려가 높아 서둘러 정비해줄 것을 이 지역 주민들이 제주시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면 어떨까 한다. 기왕이면 '제주시내 오현단 맞은편에 있는 방호벽 곳곳이 균열돼 사고 우려가 높다. 이 지역 주민들은 서둘러 정비해줄 것을 제주시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정도의 두 문장으로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

③ 주의 깊지 못한 기사(문장, 문단) : '모(아무개) 씨'라고 해 놓고 이어진 문장에서는 성명, 나이, 학력 등의 인적 사항을 밝힌다든지, 독자를 혼동하게 하는 기사가 가끔 보인다. 기사를 쓸 때는 치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

--- 동승한 노모를 숨지게 한 충남 모대학 남모(41)교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충남 대천대 전산과 교수 남기영(南基鏞·서울대 졸업·연대 대학원 졸)씨가 「어머니가 숨진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99.9.23. 한국 무기명 제목:車급브레이크 老母 사망/대학교수 과실치사 영장, 같은 기사인데 앞에서는 '모대학 남모(41)교수'라고 했다가 다음다음

문단에서는 이름, 근무처, 학력까지 밝혔다. 근무처는 물론 학력 게다가 졸업한 대학과 대학원까지 밝힐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앞 문장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고 다음 문장에서는 '독자의 알 권리'(여기에서는 이도 해당되지 않지만)를 중시한 것인가?)

--- '틀물레짓'과 '몽니' 등은 --- 그의 충청도 사투리도 수사에 기여하는 재료.(00.5.27. 동아 ○ 기자 제목:JP의 修辭 변천사, '틀물레짓(질)'이 사투리인지는 불확실하나 '몽니'는 방언도 아니고 표준어다.)

"--- (부산 아시안 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 (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00.10.30. K1TV 뉴스9 보도 기자(남), 북한이 다른 나라에게 참여하라고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아시안 게임에 북한도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말이니,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 북한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최근 일본에 2년간 체류했던 S씨(63·여·제주시 일도2동)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난 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납부했던 보험료 22만4620원을 환불받았다/그런데 S씨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출국기간 부과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경과로 환불받지 못했다/또 K씨는 --- (01.6.23. 제주 22면 ㄱ 기자 제목:보험료 면제사유 몰라/부담하는 사례 늘어, 문맥으로는 S 씨가 동일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보험료 환불의 소멸 시효인 2년이 경과해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이니, S 씨가 동일인이라면 환불 받은 보험료의 납부 기간이나 일본 체류 연도를 명시해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동일인이 아니라면 '또 다른 S씨는 ---'으로 구분해줘야 하는데, 뒤의 'S·K 씨'는 성만 적고 맨 처음에 나온 S 씨만 나이와 주소를 밝힐 까닭이 없다. 기자만 알고 쓴 요령부득의 기사이다.)

④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거리(위치) : 수식어와 피수식어, 주어와 서술어는 가능한 한 가까워야 의미의 혼란이 없다. 이를테면 '붉게 염색된 개의 가죽 목걸이'에서는, 붉은 것이 개인지 가죽 목걸이인지 명확지 않다. '개의 붉게 염색된 가죽 목걸이', '가죽 목걸이를 한, 붉게 염색된 개' 또는 '붉게 염색된, 개의(,) 가죽 목걸이' 등으로 고쳐야 한다.

최근 큰 사건 모두 대충 마무리(99.6.3. 한국 '독자의 소리' 제목, 내용으로 '마무리 대충'이라야 하는데 뜻이 정반대가 되어버렸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비아그라를 먹고 성관계를 갖던 70대 노인이 뇌졸중을 일으켜 반신마비가 됐다는 보도다.(99.7.30. 동아 '황설수설' ㅈ 논설 위원 제목:비아그라 '警報', 비아그라로 일으킨 뇌졸중이 처음이지 70대 노인이 처음으로 비아그라를 먹은 것이 아니므로, '비아그라를 먹고 --- 70대 노인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뇌졸중을 일으켜 ---' 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비아그라를 먹고 ---' 로 고쳐야 한다.)

"이번 정류장은 ○○○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99.11.15. 현재. 서울 16번 시내 버스 녹음 설명, 기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승객에게 하는 말이며 청자 역시 승객이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전 기사는 손잡이를 잡으라는 말이 아니다. 즉 "(승객) 여러분의 ---"라야 한다. '꼭'은, '힘을 주어, 꼭'인가 '조금도 틀림이 없이'인가 아니면 두 가지 뜻 전부인가? 어떻게 해석해도 무방하지만, 손잡이를 '힘을 주어' 잡고 있으란 말에 가깝다. '꼭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라면 '틀림 없이, 반드시' 잡으라는 말로 해석된다. 출입문에 붙어 있는 표지인 '난(냉)방을 위해 문을 꼭 닫읍시다.' 역시 '틀림 없이'의 뜻으로 쓰려면 '꼭 문을'이라고 해야 좋다. 이 표지를 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해석은 제멋대로지만 말이다.)

네팔의 코미디 같은 비극(01.9.25. 제민 6면 '오피니언'의 '제민 포럼' ○ 교수 제목:네팔의 비극과 제국주의 중간 제목, 네팔에서 2001년 6월에 일어난 비극(왕실 식구들을 참살한 사건)의 회극성을 설명한 부분에 대한 중간 제목이다. '네팔의 코미디'가 아니고 '네팔의 비극'이니, '네팔의, 코미디 같은 비극' 또는 '코미디 같은 네팔의 비극'이라야 마땅하다.)

⑤ 접속어 사용과 문장의 호응 : 접속 부사를 남용하거나 잘못 쓰면 글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장이 매우 거칠어진다. 조사 '-마는'을 전환 접속에 쓰는 일도 같은 맥락이다. '내일은 일요일이다마는 매우 춥겠습니다.' 같은 말은 성립되기 어렵다.

김씨는 --- 육군초병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99.7.20. 한국 ㅈ 기자 제목:"어린 두아들이 무슨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하다.',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가 아니라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이라야 한다. 생명에 지장이 없어 유감인 것처럼 보인다.)

일요일, 캠퍼스에는 가을을 만끽하려고 사람들이 많아 분주하다. 그러나 버리고 간 쓰레기로 캠퍼스가 더럽혀지고 있다.(99.11.9. 제대 619호 5면 ○ 기자 사진 설명 제목:“사진으로 본 풍경”, 캠퍼스에 무엇이 분주한지 알 수 없고 주어도 없는 惡文이다. 아마 ‘캠퍼스는 --- 북적거린다(댄다)’는 말인 듯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뒤로 미룬다. 무엇보다 ‘그러나’로 연결된 앞뒤의 문장은 역접이 될 문장이 아니라서 전혀 호응이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로) 분주하지만 쓰레기로 더러워진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를 빼든지 ‘그래서’ 같은 말로 바꿔야 한다.)

물론 본업인 ‘공무’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총리실에서 23명의 총리를 수행하며 일처리 하나만큼은 똑 부러진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99.11.13. 중앙 ㅎ 기자(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대 명예초청교수가 된 조병세 씨 기사). ‘공무도 게을리 하지 않은 것’과 그 이유가 ‘일처리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직결되기 어렵다. ‘때문’을 빼고 ‘--- 소리를 들었다.’ 정도면 되겠다.)

⑥ 문장 부호의 중요성 : 부적절한 곳에 부호를 찍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그보다는 부호를 너무 아껴서 의미의 효과적인 전달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쉼표나 따옴표에 인색하여 혼란을 주는 일이 많다. 제목을 붙일 때, 기사를 쓸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몇 예만 보인 다.

관리사무실을 통하거나 단지 내 개보수 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시공업체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00.10.30. 동아 ○ 기자 제목:‘댕고 조이고 바꾸고... “아파트 끝까지 책임집니다”. 관리사무실이나 개보수 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시공업체에 문의하라는 것인지 관리사무실을 통하거나, 시공업체에 문의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즉 관리사무실을 통하라는 것인지 관리사무실을 통하기 전에 알아보란 것인지 모호하다. ‘이용하기 전에,’ 또는 ‘관리사무실을 통하거나,’라야 한다.)

‘끔찍한 창조=폰수의 등식’(00.11.22. 대한교원 제758호 2면 ‘김정란 칼럼’ 제목:미래의 모차르트 중간 제목, 창조적일수록 폰수 취급을 당하는 풍토를 비판한 내용이므로 ‘끔찍한, ‘창조=폰수’의 등식’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끔찍한 창조’가 ‘폰수(의 등식)’과 같다는 말인 줄 알고 호기심에 칼럼을 정독하였다. 편집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승현씨 불구속 수사/김은성씨가 부탁 확인(01.12.8. 중앙 1면 ㄱ 기자 제목, 김은성씨가 부탁과 확인을 한 것처럼 보이나, 김은성씨가 부탁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검찰이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김은성씨 부탁’ 확인’ 이라고 해야 한다. 아니면 ‘확인’을 빼도 좋겠다.)

탱크탑 핫팬츠 홀터넥 등 기본/카디건·스카프·두건과 함께 코디 (01.5.26. 한라 12면 ‘을 여름 패션’ ㄱ 기자 제목:폭염타고 과감해진 노출 패션 ‘인기’ 중간 제목, ‘탱크탑·핫팬츠·홀터넥’이 좋다.)

제주바다에 페타이어·철사 등 562t 쌓여/청정해역 명성 금갈라(01.9.11. 제주 22면 ‘사회’ 서울=본사 ㄴ 기자 제목, ‘금갈라!’가 좋다. 명성에 금을 갈랐다는 말인가?)

㉠ 속담, 경구, 관용어 등의 인용 : 속담이나 관용어를 정확하지 않게 쓰면 말맛을 떨어뜨린다. 한 예로, ‘본바탕은 썩 좋은데 아깝게도 흠이 있다.’는 뜻인 ‘옥에 티’는 굳어진 관용어인데도 ‘옥의 티’로, 그것도 인용부까지 해 가며 그릇 쓰는 일이 많다. 예시에서 보듯이 같은 날 같은 신문에서도 두 말을 혼용하는 실정이다. ‘따 놓은(따 논) 당상’은 앞서 검토한 바이다²²⁾.

㉡ “소귀에 경 읽기나 다름이 없습니다.”(01.9.11. K1TV 뉴스9 ㄱ 공동 앵커(남), ‘쇠귀에 경 읽기(=쇠코에 경 읽기)’라야 옳다.)

㉢ --- 양이 적은 것이 ‘옥에 티’//당시 대학가 세부 묘사에서 ‘옥의 티’가 간간이 눈에 띄고 --- /주체의식의 과잉도 ‘옥의 티’다.(01.6.2. 동아 A24면 ‘메트로’ 제목:졸깃한 면발... 알싸한 국물.../메밀국수 더위가 ‘짜~악’//같은 날 같은 신문 A14면 ‘주말 TV영화’ ㄱ 기자 제목:사랑하는 이가 21년후 사람이라니...//01.8.18. 중앙 39면 ‘대중출판’ ㄴ 기자 제목:“홍등가의 불빛은 별을 닮았다”)

㉣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당사자나 관계당국으로서야 --- (01.10.5. 동아 A11면 ‘국제’ ㅎ 기자 제목:印 여객기 피랍說... 세계가 ‘발칵’//01.10.29. 중앙 6면 ‘오피니언’의 ‘분수대’ ㄴ 국제부장 제목:해프닝, ‘국에 덴 놀이 물 보고도 분다. 더위 먹은 소 달만 보아도 허덕인다. ‘吳牛喘月, 懲羹吹臍’와 같

은 이 속담의 원형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뎡 보고 놀란다. 자라 보고 놀란 놈이 솔뚜껑 보고 놀란다.'인데,²³⁾ 최근 사전에는 '소뎡'이 쓰이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뎡(솔뚜껑) 보고 놀란다.'(「국어연구원」)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놀란 가슴 소뎡 보고'로 쓰면 더 적확하다. 근래 이 속담의 원형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에서는 더욱 그렇다.)

㉔ "허기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지만 ..." (00.5.13. MBC TV 국 '전원 일기' ○ 작가, 극 중 파출소장의 말, 우리 속담은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이다. 조선조에 '평양감사'는 없고 '평안감사'가 있었다.)

㉕ 구체적인 표현의 필요성: 말하는 주체가 모호한 문장이 특히 언론에 많은 까닭은 일종의 책임 회피라고까지 생각한다. 앞서 검토한 '우리'도 같은 맥락이다²⁴⁾.

외교부 직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이 모아질 때 이는 가능하리라 본다.(01.11.8. 한국 2면 '종합' 社說 제목:실무자 문책은론 안된다, '국가'는, 이를테면 외교부 외의(또는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 부서와 국민을 포괄하는 말인지 입법·사법·행정부를 지칭하는 말인지, 그 범위가 모호하다. '정부' 또는 '국민'이라고 바꾸는 것이 좋을 듯싶다.)

또 가공용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처리절차가 간편하다는 것도 한 요인이 라고 지적됐다.(01.11.13. 제대 658호 7면 '지역사회' 송 기자 제목:대책없는 감귤 문제, 띄어쓰기는 차치하고, 누가 지적했는지 모호하다.)

"--- (전화 요금을 기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통역 전화가 거의 쓰이지 않는 데도, 제주도에는 모든 택시에 설치하려고 계획하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01.11.13. K1TV 뉴스9 제주 뉴스 ㅅ 기자(남), 이를테면 택시 기사들의 빈축을 사는지, 방송 기자들의 빈축을 사는지, 모든 제주도인의 빈축을 사는지 불분명하다. 더욱이 '빈축을 사다(噸贖을 買5)'는 일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표현상의 한 예로 '-했던 것이다.'에서 '것'은 추상성이 강한 말이라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구체적인 단어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사실을 객관적·직설적으로 전해야 하는 언론 매체는 더욱 그러하다. 너무나 완곡하고 상투적인 어법이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는 '추진하여야 한다.'라야 좋다.

"--- 야채 위주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00.5.3. K2TV '병원 24

23) Cf. 이기문, 「속담사전」, 민중서관, 1962.

한국민속학회 편, 「한국속담집」, 서문당, 1972.

24) Op. cit.

시' 글·구성 ㄱ 작가 해설 ㄱ 성우, '하는 것이다'는 '한다'면 족하다. '아
체'는 별론한다.)

⑨ 전문가 견해의 인용 :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데도, 전문가의 피상적인 견해를 인용하여 기사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은
관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또 해당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손쉬운 취재
원을 통하는 일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발로 뛰는 취재보다 앉아서 쓰려
는 즉 취재를 쉽게 하려는 데서 온 현상이 아닌가 한다.

--- 교수는 “피해자 보상문제는 통일 후 사회 통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라며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근거와 절차, 그리고 보상규모 등에 대
해 우리 실정에 맞는 객관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00.8.3. 한국 0 기자
'독자와 함께' 제목:민주화운동·국가유공자보상 어떻게 받나, 뒷부분의 “전
문가 견해”이다. 기사가 이 내용인데 좀더 심층적인 구체안을 말한 것도 아
니고 동어반복 같은 말이다. 마치, 가게 빛이 는다는 보도(00.12.22. K1TV
뉴스9)에서 한 은행원이 '(사람들이) 카드로 일단 서비스 받아 쓰고 메우
니' 그렇다고 얘기하는 식이다.)

IV. 結論

연전에 ㄷ 침대 회사의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는 광고 문안 때문에
학부형들이 강하게 항의한 일이 있었다.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본 아이들이 “엄마, 저 사람 메가패스 장군 맞지?”/“와 메가패스 장군이
다!”(01.8.28. 동아 A22면 '메트로'의 '500자 세상' ㄱ 기자, ㅎ 통신 광고의 영향
임) 할 정도로 광고의 힘은 막강하다. 광고가 이 정도인데 신뢰성까지 더
해진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 매체의 영향력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고(정신)를 담는 그릇이
다. 바른 생각은 바른 언어 생활에서 나온다. 언론 매체의 우리말글은 국
민들의 언어 생활을 좌우한다. 따라서 언론 매체에서 바르고 고운 우리

말글을 사용해야 사회도 더 맑아진다고 믿는 필자는, 오랫동안 조사한 결과물로 우선 방송의 발음, 국어 사전의 발음 표기, 표준 발음법 보완에 대해 논술한 데 이어 제주 지역의 신문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제한된 지면 때문에 단어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기사는 독자의 관점에서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타'에서 문장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보았다. 일(영)어의 잔재, 외국(래)어 오·남용, 역어체, 非文·惡文, 문장의 호응, 문장 부호 등의 여러 문제는 별론하겠다.

무엇보다 허술한 어문 규정과 권위 있는 사전이 없는 상황은 우리말글을 더 어렵게 하지만, 언론 매체 종사자는 우리말글의 길잡이라는 사명감을 지니고 바른 우리말글을 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틀렸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틀린 말을 위주로 서술하게 되었다. 제주 지역이 특히 오류가 많은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과 같이 전국지의 우리말글을 생각 없이 모방·답습하고 있다. 특히 사동·피동형의 오·남용이 심하다. 그러면서도 좋은 말글이 있었으나, 이 글의 성격상 치켜세우지 못해 아쉽다.

독자는 보통 기사 제목을 보고 정독(열독) 여부를 결정하는데 제목을 붙일 때 우리말 구사가 너무 어색하거나 틀리는 일이 많다. 편집 기자의 끊임없는 연수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일선 기자는 물론 우리말글 구사에 더욱 주의해야 할 방송의 자막 표기자, 텔런트, 리포터, 아나운서, 방송 PD와 방송 기자, 드라마 작가와 구성 작가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발음에 한해 보면 성우도 예외일 수 없다.

언론 매체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그러나 보여도 또 들려도 괴로운, 우리말글의 혼돈 상태가 얼른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논의하였다. 특정 언론 매체나 특정인과는 전혀 무관한 작업이니, 필자의 충정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 자리에서 문인, 학자, 지식인들의 각성도 촉구한다. 비판 정신을 지니고 문화를 창조·전달·응용하는 일은 바른 언어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대체로 시나 소설의 언어는 우리말법을 잘 따르지 않는데, 이른바

‘문학적 허용’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본론에서 문인이나 학자의 예를 든 것은 이 때문이다. 일선에서 학생을 직접 대하는 초·중·고 교사의 우리말글 사용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니 교사의 책임 또한 크다. 이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도 당부한다. 덧붙여, 신문의 바른 우리말글을 위해 애쓰는 전국의 교열부 기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보낸다.

올바른 말글 생활은 올바른 삶의 출발점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국어대사전」, (주)두산 동아, 1999.
———, 「2000년 신어」, 2000.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0.
국어연구소, 「표준어 규정 해설」, 1988.
문교부, 「국어어문규정집」, 1990.
문화관광부, 「알기 쉬운 어문 규범집」, 2000.
북한 사회과학 연구원,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제8판), 금성출판사, 1988.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1999.
연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 한국어사전」, (주) 두산 동아, 1998.
운평어문연구소 편, 「그랜드 국어사전」(초판 제4쇄), 금성출판사, 1996.
——— 편, 「국어대사전」(제2판 제1쇄), 금성출판사, 1996.
이기문, 「속담사전」, 민중서관, 1962.
이은정, 「우리말 발음사전」, 백산출판사, 1992.
———, 「최신 표준어·맞춤법 사전」, 백산출판사, 1995.
——— 편집국 편,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 편집국 편, 「엡센스 國語辭典」(제3판, 수정판 제1쇄), 민중서관, 1991.
——— 편집국 편, 「뉴에이스 국어사전」(혁신판), 금성출판사, 1995.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개정판 3쇄), 동아출판사, 1996.
——— 편집국 편, 「엡센스 國語辭典」(제4판), 민중서관, 1999.

— 편집국 편, 「새 국어사전」(제4판 1쇄), (주)두산 동아, 2000.

한국기자협회, 「기자통신」(01.7.)

한국민속학회 편, 「한국속담집」, 서문당, 1972.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1.

동아 · 문화 · 조선 · 중앙 · 한겨레 · 한국 · 교수신문 · 대한교원신문 · 제대신문 · 신
동아(01.1.) · 주부생활(98.12.) · KBS TV · MBC TV(Radio) · SBS
TV · EBS TV · 제민 · 제주 · 한라 등.

김윤학, 「바르고 고운말」 1996, 박이정.

米昇右, “61가지 뜻으로 남용되는 낱말 “모습””, 「말과 글」 제16호, 한국교열기자
협회, 1982.

서재극, “한글 전용의 필요성”, 「한글 새소식」 제219호, 한글학회, 1990.

소범, “‘왕따’→해코지질/해살질/구박질”, 「말과 글」 제85호, 한국교열기자협회,
2000. 42~44쪽.

임동훈,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화관광부, 「우리말 바로 알기」, 1999.

장진한, “단위명사 통일”, 「말과 글」 제72호, 한국교열기자협회, 1997.

장철, “터무니없는 탈로써 엉터리없는 트집”, 「한글 새소식」 제233호, 한글학회,
1992.

鄭龍起, “‘마음의’과 한-漢 융합”, 「말과 글」 제69호, 한국교열기자협회, 1996.

정재도, “셈술말과 셈날말의 어울림”, 「말과 글」 제72호, 한국교열기자협회,
1997.

許椿,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
문과학연구소, 2000a.

—,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2000b.

—,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인문학 연구」 제8집(특집호), 제주대학교 인문과
학연구소, 2001a.

—, “韓國 放送의 外來語 發音 檢討”,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1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1b.

—, “國語 辭典의 發音 表記 補完”,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학회, 2001c.

—, “우리말 ‘표준 발음법’ 보완”, 「어문학」 제74집, 한국어문학회, 2001d.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檢討—틀리거나 어색한 말”, 「濟州島研究」 제20
집, 제주학회, 2002.